

오늘부터 2월국회... 각종 현안·입법 '뇌관' 즐비

광역·기초의원 34명 증원 합의

국회 정개특위... 전남도의원 1명(목포) 포함

여야, 카드사태·기초연금·정당공천 공방 치열

검찰·국정원 개혁 등 쟁점법안 정면충돌 예상

3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는 각종 현안과 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기 중인 현안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 기초연금 수정,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이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해 있어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사태' 국조=이달 말까지 진행될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조사에서는 해법과 책임 수위를 놓고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관계 당국에 대한 문책 수위를 높고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현역 경제부총리와 신재운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인적 책임보다는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초연금·기초공천' 대선공약 파기 논란=우선 기초연금의 경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키로 했지만 전방은 밝지 않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 국민연금 가

입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정부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으로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여야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당공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현행 공천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검찰·국정원 개혁 각론도 쟁점=검찰과 국정원 개혁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합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에 사이버 안보 총괄 역할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휴대전화 감청 허용을 반대하는 동시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찰·

경찰 이관, 보안업무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등을 요구 중이다.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의 검찰개혁법은 2월 중 합의체로기로 약속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실시 요건에 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견해가 다른 데다 특별감찰관의 검찰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할지 여부도 대립적이다.

이밖에 여야는 2월 국회에서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 등을 담은 이른바 '의료영리화' 법안과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뚜렷해 협력을 예고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북한인권법 등 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통령, 설 연휴 정국구상 뭉개

카드정보유출·AI 대응책 관심

62번째 생일...뚝째 조카 얻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특별한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마지막날인 2일이 62번째 생일이었지만, 별도의 생일행사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내달 5일부터 시작하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비해 국정현안의 세부 내용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제시한 국정운영 방향에 각 부처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를 미리 파악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지시하기 위해 꼼꼼히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현안인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조기에 수습하는 방안에도 골몰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함께 공백이 길어지는 청와대 인사(人事)에 대한 구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대통령이 설날에 뚝째 조카를 얻었다. 이날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민 EG회장의 부인인 서향희 변호사가 지난 31일 오후 청담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뚝째 아들을 낳았다. 출산은 자연 분만으로 이뤄졌으며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설 대통령의 뚝째 조카가 태어났다. 대통령께서는 전화 통화를 하고 축하난을 보냈다"고 확인했다. 이 수석은 이어 "연휴 기간이어서 거기가(병원) 복잡할 것 같아서 직접 가시지는 않았고, (산모의) 몸이 풀리고 나서 찾아가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로써 2005년 9월 지만 씨와 서 변호사 사이에서 태어난 첫 조카 세현(9)군에 이어 9년 만에 뚝째 조카를 갖게 됐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으로 성묘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뷰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황주홍 의원

'청년 통통 정치인상' 수상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지난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창립 4주년 기념식에서 '청년 통통(소통+통합) 정치인상'을 받았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 청년유권자와 가장 활발한 소통을 한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황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장문석, 이재영 의원이 함께 받았다.

이에 앞서 황 의원은 지난 27일 '한반도미래포럼' 창립총회에서 조경태 의원과 함께 삼일공동대표에 추대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서구·북구, 순천 광역 선거구 조정

정당공천 폐지·교육감 직선제 계속 논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28일 광역의원원과 기초의원 수를 각각 13명(비례 1명 포함)과 21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광주의 경우 광역의원은 19명, 기초의원은 68명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전남은 목포에 광역의원을 1명 늘려 53명으로 증원한 반면 기초의원은 243명 정원에서 변동이 없었다. 다만, 광주 서구와 북구, 순천의 광역의원 선거구를 일부 조정했다.

특위는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을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구 시·도 의원 정수는 기존 651명(제주, 세종시 제외)에서 663명으로 늘어난다. 시·도 의원은 비례대표도 1명 늘어난다.

여야는 대선 공명공약이자 핵심쟁점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여부와 현행 직선제인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특위 활동시한을 예초 1월 말에서 오는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오는 6월말 이후 없던지 폐기된 교육위원과 교육위원회 존속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위는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비롯해 13개 항의 공정선거 강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선거법·선거법으로 커·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불공정 선거법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사위 설치,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 신설, 사전투표시간 연장, 국가기관·지자체·학교기관 등에 대한 투·개표 관련 장소 및 인력 협조 의무 부과 등이 포함됐다.

또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 게재 순위가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바뀌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개인정보유출 '집단소송제' 추진

공정대출법·을 피해구제기금법 제정도

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악탈적 대출', 환경과, 위장대출 등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은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내용이

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피해입증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소송해도 보상받기 어렵다"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른 기업을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악탈적 대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공정대출법'을 제정,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악탈적 대출'이란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못 갚을 때 대신 갚을 사람(보증

인)이나 빼앗을 자산(담보, 급여압류)을 전제로 소득 수준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행태를 말한다.

또 1000조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시한 폭탄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가계부채 3법'을 추가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부업자들이 소비자를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TV를 통한 대부업 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분야 '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구제기금을 만드는 것을 핵심으로 한 '을 피해구제 기금법'을 제정하고, 하도급 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시 대기업의 우월한 지위에 대응해 중소기업합동조합이 공동구매·공동납품·공동고급을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높은 대출금리의 벽 앞으로의 금융, 신탁이 바뀝니다.

대출한도 최대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광주원광신탁

궁동본점 227-4474
금호지점 383-4474
풍암지점 653-4474

사람+금융=광주새마을금고

37년의 역사와 전통으로 시민금융을 지켜온 광주새마을금고

대출 리모델링 전문

대출한도 개인 500억원
법인 1000억원
(중앙회 플러스 연계대출 한도 포함)

비율 최고 80%
취급대출 : 동산 및 각종 부동산 (중교시설 전문)

금 리: 최저 4.06%~

돈이 모이는 비과세 금융상품
세금없는 비과세 최고 7,000만원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3,000만원, 생계형 3,000만원)
광주새마을금고에 오시면 꿈과 미래가 보장됩니다.

MG 광주새마을금고

대표 본 점:361-3515 양 동 지 점:362-6164
전화 각화지점:268-6163 풍암금호지점:651-6167

광주 광역시 서구 천변로 246번길 3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871)	광주교육대학교(971)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2014. 3. 7.(금) 08:10~10:00(특강반) ·목요일 오전반:2014. 3. 6.(목) 09:10~10:0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2014. 3. 8.(토) 08:10~10:00(중급반)	·월, 목 야간반:2014. 3. 3.(월) 19:00~21:00(초급반) ·목요일 오전반:2014. 3. 6.(목) 09:10~10:00(중급반) ·토요일 오후반:2014. 3. 8.(토) 14:10~16:00(중급반)
모집기간	2014. 1. 23.(목)~3. 8.(토)	2014. 1. 23.(목)~3. 8.(토)
수업기간	2014. 3. 7.(금)~2014. 8. 16.(토) (16개월 24주 96시간)	2014. 3. 3.(월)~2014. 8. 16.(토) (1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공주예대) ·공주은행:146-107-307803	₩360,000 (예금주·공주예대) ·우체국: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현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062)950-3582~4 ·지도교수:010-3614-4160	·문 의:062)520-4243 ·지도교수: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동국대학교 전산원 학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동국대학교 전산원 특징

- 최우수 학생은 행정 교육기관 (2013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정)
- 4년제 학사학위를 2~3년만에 취득가능
- 서울소재 4년제 대학교 3학년 학사학위 1위 (2013년 학사학위 등 233명) - 10년 연속 학사학위 최다배출 교육기관
- 대학원 진학의 자용성 - 동국대학교 대학원 (MBA 등)과 연계 운영
- 저렴한 학비, 학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및 취업서비스 제공
- 학사취득 후 학사과정 지원가능
-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고시원, 학생집)비 일부지원

모집학과

학과	학위	인원	학과	학위	인원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00명	외식경영학과	관광학사	00명
멀티미디어학과	공학사	00명	사회복지학과	행정학사	00명
경영학과	경영학사	00명	행정학과	행정학사	00명
국제경영학과	경영학사	00명	영화영상학과	예술학사	00명
호텔관광경영학과	관광학사	00명	경영학과(주일)	경영학사	00명

지원자격 및 전형방법

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령에 의하여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나. 면접 및 면접 고사

수능성적·내신과 무관 / 대학수시·정시 합격자 지원가능

전형일정 및 장소

가. 전형일정 : 홈페이지 (<http://www.dongguk.ac.kr>) 참조
나. 면접장소 : 동국대학교 빈야드 4층 (동국대 체육관옆)

입학상담 02-2260-3333

dongguk UNIVERSITY 동국대학교 전산원
3호선 동대입구역 6번출구 (동국대학교 캠퍼스 내)
3, 4호선 송파로역 1번출구